'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인터넷 검색창에 요셉의원 ▼ 을 쳐보세요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2021년 10월 제 118-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조해붕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하늘로부터 받은 숙제는 이웃 도우며 좋은 관계 맺는 것'

봉사자 INTERVIEW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2018년 6월 정년을 6년 앞두고 충북대의대 교수직을 떠난 김용민 봉사의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경찰병원에서 후배들의 논문지도를 하고 있다. 사진 아래는 2010년 지진 참사가 일어난 아이티에서 골절 소년 환자와 함께.

본원에 한 달에 한 번 정형외과 무료 진료를 나오는 김용민 봉사의(62)는 일찍부터 의사라는 직분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다. 그런 점에서, 무료 진료를 나서는 많은 의사들이 그러하듯 돈을 좇기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교육하고 진료하며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3년 여 전인 2018년 6월 정년을 6년 앞두고 충북대의대 교수직을 훌쩍 떠난 그는,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소신대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참여해 팔레스타인과 에티오피아 오지 등에 다녀왔다. 그에 앞서 교수 재직 때인 2010년 2월에는 대규모 지진이 휩쓴 아이티의 참사 현장으로

118-1호 주요 소식

1 봉사자 INTERVIEW

4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7 쪽방촌 향기

8 병원 소식

10 후원의 손길

달려갔고, 퇴임 바로 전에는 2주 연가를 얻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총상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땜장이 의사의 국경 없는 도전'

– 신변에 위험이 따르거나 고달프기도 한 외국의 재해 현장과 분쟁 지역에까지 의료봉사를 나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의사라는 직분에 대한 소명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려 노력한다고 할까요. 의사는 아픈 환자를 진료하는 직업이니까 제가 지니고 있는 의술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돕자는 거지요. 요셉의원에 나오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는 지난 2019년 본원 김정순 간호사와 연결돼 본원에 봉사를 나오게 됐다. 요셉의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큰 누이인 김희옥(아녯다) 수녀로부터였다. 김 수녀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원목수녀로서 본원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과묵한 김 수녀는 가끔 가족과 모일 때에도 요셉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한다.

김 봉사의는 2019년 7월 '땜장이의사의 국경없는 도전'이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펴내 자신이 의사로서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후학들에게 '의사의 본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 잔잔한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다. 회갑을 맞아 출간한 이 책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와 함께,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전라도 시골과 소록도 병원에서의 공중보건의 생활을 거쳐 전문의가 되고,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자 편에서 생각하고 제자들을 관심과 애정으로 이끄는 모습,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로 참여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있다.

– 책은 많이 팔렸습니까?

"4쇄를 찍은 지가 10개월 정도 됐으니, 다 팔리면 4000여 권 정도 되겠지요. 의사로서 지나온 길을 얘기하면서 좀 교훈적인 내용도 담았어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젊은이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가지 않은 길이어서 너무 먼 얘기이고, 내용 중에 돈 안 쓰기, 음식 안 남기기 같은 절약 얘기가 있어서 공감이 덜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은퇴 전후 제 또래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눈물과 웃음도 나고, 좋은 감화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이들이 꽤 많았어요."

김 봉사의는 가난한 외국의 의료 빈민 지원에 대해 의료봉사단을 조직해 진료봉사를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현지인 의료봉사자를 국내 의대에서 교육하고 장비 등을 지원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8년 여름 에티오피아 서남부 오지 감벨라에서 어린이 환자들과 함께.

"수술 안 해도 되는 척추환자 많아"

이 책에서 그는 '의사는 환자를 잘 안심시켜주어야 한다'고 썼다. 수술을 주로 하는 정형외과이지만 환자에게 겁을 주어 수술이나 시술로 이끌기보다는, 필요성이 확실치 않은 경우 수술 안 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됨을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

"제가 맡고 있는 척추분야도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불안정 척추골절을 금속으로 고정해 수술하면 그 다음날부터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잉 진료가 문제되는 오늘날에는 정말 수술이 꼭 필요한가는 잘 따져봐야겠지요."

척추 전문의인 그는 대학병원 재직 때나 지금(경찰병원)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권한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라고 한다며 정말 해야 되느냐고 묻는 장노년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가져온 MRI 영상

김 봉사의는 어느 의대에서 그의 강연을 듣고 '이제 의대 공부를 할 이유를 찾았다'고 쓴 학생의 소감문 얘기를 듣고, 시간을 들여 학생들을 찾아다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클리닉에서.

과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굳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상당수라고 한다.

"MRI의 등장과 함께 전에는 안 보이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도 보이게 됐죠.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자연적인 것이므로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큰 일이다, 수술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퇴행성 변형이 너무 심해 신경을 눌러서 걷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요."

"결단을 주저할 이유는 수십 가지입니다"

–의사가 되려는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지요?

"직업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돈도 벌고, 학문적 성취나 뛰어난 전문가 등으로 성장하는 '나를 위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이 생겼다는 측면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환자는 자신의 아픔이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오는 것이지 의사가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환자와 의사 서로 간에 도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 봉사의는 여러 의대를 방문해 의사의 본분과 의료봉사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어느 의대에서 그의 강연을 듣고 난 뒤 '이제 의대 공부를 할 이유를 찾았다'라고 쓴 한 학생의 소감문 얘기에 그동안 시간을 들여 학생들을 찾아다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수직을 던진 그는 비슷한 생각이 있어도 주저하는 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바로 '하지 않을 이유는 많지만 용기를 내자'는 말이다.

"제가 교수직을 떠났을 때 주위 사람들의 첫 반응은 '왜 그랬냐?'였어요. 대개는 경제적 상황을 우려해서이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나도 당신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 단계를 건너뛰려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할(않을) 이유는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느냐 안주하느냐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봉사는 베푸는 게 아니라 본인도 기쁘고 보람 느껴야"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의 좌우명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위험하거나 힘들더라도 기꺼이 나선다'라는 말로 압축된다. 다녀온 봉사가 바로 그렇다.

–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봉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 의과대학에서 아이티 진료봉사 경험에 대한 강의도 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련 강의도 꽤 했었죠. 한 예로 요셉의원 같은 사회복지시설 봉사에 참여할 때 '못 가진 불쌍한 사람들에게 부요한 내가 뭔가 베푼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만족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봉사가 아니지요. 봉사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봉사하는 행위자도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도 감사와 기쁨,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김 봉사의는 그의 책에서 '인생의 3단계(약 60세 이후)는 하늘이 왜 나를 세상에 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기간'이라고 썼다. 답을 찾은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는 "숙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지요. 세상에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얼마나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오는가가 하늘의 숙제인 것 같다"며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2021.07~10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판자촌 도시빈민 위해 진료도 하고, 생계도 지원합니다’

진료와 무료급식 및 식료품 지원 등 다섯 가지 사업 펼쳐

필리핀 요셉의원은 수도 마닐라의 말라본과 나보따스 지역 빈민들을 위해 진료와 무료 급식, 식료품 지원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 위는 한국 의료봉사단 활동 모습(2016.11).

필리핀 요셉의원은 마닐라 북부도시 말라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해안 지대가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러 강줄기가 구비구비 흐르는 늪이 많은 지역이다. 매년 바람과 홍수 피해가 커서 사람이 평온하게 살만한 도시는 아닌 것 같다.

필리핀도 역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 마닐라로 몰려들었다. 이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강가 주변과 바닷가 주변, 그리고 늪지대 위에 집을 지어 살게 되었고, 그렇게 거대한 판자촌이 이곳 말라본과 나보따스 지역에 형성되었다. 거주지역 환경이 좋지 않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에 노출돼 있다. 고 최영식 마티아 신부님께서 이곳에 요셉의원을 설립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로 의료봉사단 방문 막혀 현지 의사들이 주 2회 진료

필리핀 요셉의원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의료 사업. 코로나 이전에는 매일 진료가 있고, 또한 한국에서 의료팀이 연 5회 정도 와서 빈민 지역 구석구석을 방문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 일반 환자를 진료해주는 것도 좋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렸으나 검사비용이 비싸서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

생활 묵상

‘그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러 이유로 지난 2년간 한국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모금 활동도 하지 못했다. 병원을 유지하고 빈민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려면 ‘후원금이 계속 필요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다. 더욱이 이곳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무료급식소에 새로 가입하길 원하는 어린이들이 계속 늘어났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수시로 찾아와 먹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가끔 진료받는 도중에 정원에 있는 과일나무의 과실을 따가기도 하고, 밭에 있는 농작물을 뽑아 가져가기도 한다.

어느 공휴일 오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또 정전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 검사를 받게 하고, 약물 치료와 수술까지 시키는 것이 우리 요셉의원의 가장 주된 업무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의료팀은 오지 못하고, 현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주 2회 진료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다. 한 지역에 80여 명씩 총 3개 지역 240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 요셉의원에서 음식을 만들어 각 지역에 배달하는 형식인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 함께 모여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가끔 아이들이 메뉴를 보고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원 음식을 받으러 온다. 그만큼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 사업은 장학 사업으로, 뜻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이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돼 모두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14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 7명 등 모두 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식료품과 집 수리 지원사업으로 빈민 가정 도와

네 번째 사업은 식료품 지원이다. 가톨릭경제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이 '바보의 나눔'을 통해 이곳으로 전달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다. 총 100가구를 선정해서 매달 2만5천원 상당의 식료품을 1년 동안 나눠주기로 했다. 별 것 아닌 듯하지만, 한 달 열심히 일해야 9000페소 정도 버는 사람들에게 1000페소 어치의 식료품 지원은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현재는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 편부모에 아이 2명 이상인 가정, 직업 없이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주요 대상이다.

다섯 번째 사업은 집수리 사업이다. 고 한정관 신부님과 유족의 뜻에 따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한 후원으로 새로 시작하게 된 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로 집이 부숴졌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리하지 못하는 집들을 선정하여 고쳐주는 것이 주요 목표다. 집이 모두 판자집이다 보니 수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한 주에 한 가구씩 1년에 48가구 정도로, 3년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한국에서 일년에 5회 정도 의료봉사단이 찾아와 진료를 했으나, 지금은 현지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주 2회 진료를 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직원을 불러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더니 누가 전선을 끊어 갔다는 것이다.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뭐든지 가져가도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한 내 잘못도 있을 것이다. '이러다가 밤에 누가 집안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동정심 같은 편치 않은 감정이 스며 올라왔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무료병원의 전깃줄까지 훔쳐갈까.'

요즘 코로나로 사람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놀러가지 못 해서 답답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서 불편한 상황이겠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단지 일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다.

그런데 가엾은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은 주님이셨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가엾은 마음"으로 자주 묘사된다.

특히 마태오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묘사돼 있다.

또한 마르코복음 6장에선 파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많이 지친 것을 보시고 '외딴 곳에서 좀 쉬자'고 제안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육로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도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래서 고된 여정에 따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가엾은'이란 단어는 희랍어 원어로는 '스프랑크나(σπλάγχνα)'라고 하며, 그 본래의 뜻은 심장과 간, 창자 등 중요한 제사 때 제물로 바쳐진 장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동사의 의미로 '심장, 간, 창자 등이 아프다', 직역을 하자면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걱정했던 후원금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단체에서 좋은 곳에 써달라며 후원이 계속 이어졌고, 그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두 개나 더 시작할 수 있었다.

이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그리고 돌봐주시는 것도 그분이시다. 이런 저런 물질적 걱정에 휩싸여 있는 나에게 주님은 '그것은 네몫이 아니다' 하신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네'라고 응답하면 그만이다.

부서진 집 고쳐 '새집 만들어주기 사업' 시작

'집수리 사업'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돌리네 집의 고치기 전(오른쪽 위)과 고친 뒤의 모습(오른쪽 아래).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집수리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로 집이 부서졌어도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이런 집들은 성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 지어준다고 보면 되겠다.

이곳 빈민촌의 집들은 대부분이 판자집이다 보니 수리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앞서 말했듯, 일주일에 한 가구씩 일년에 48가구, 3년을 목표로 실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판자촌 사람들 대부분이 어렵게 살고 있는 와중에서 더 어려운 집이 있는지 찾으려다 보니 서로 자기 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였다. 더욱이 처음엔 대상 가정으로 뽑혀 1차 방문을 받고도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때문에 나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안타까웠으나 예산이 빠듯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다.

네일라 할머니네 부서진 집의 고치기 전(왼쪽)과 고친 뒤의 모습.

첫 번째 혜택은 돌리(Dolly)네에게 돌아갔다. 두 딸과 살고 있는 돌리 자매는 산파귀타(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필리핀 꽃)를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다. 이들은 지붕이 부서졌는데도 천막으로 덮고 또 덮어서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바람이 불라치면 천막이 날아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돌리네에 이어 홀로 손자 셋을 돌보고 있는 네일라(Nelia) 할머니네의 쇠락한 집도 예상 외로 빨리 수리가 끝났다. 새집을 얻게 돼 크게 기뻐하는 모습들에 나도 덩달아 기쁨이 솟아올랐다. 돌아가신 한정관 신부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된다.

2021년 7~9월 신규 후원회원

강이준 기정혜 김윤자 서주미 오인숙
이나경 이영애 이충희 장은정 전성은 전준범 전준서
정진희 조원철 최지원

2021년 7~9월 신규 후원단체

고덕동 성당

2021년 7~9월 진료 및 급식 통계

진료 1,224명 약 처방 418명 급식 15,652명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1년 9월 현재)

진료 83,787명 급식 384,358명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 : 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쪽방촌 향기

'선우 원장님의 얼굴'

"불교에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써 구제해주는 천수관음(千手觀音)보살이 계신다. 지금 요셉의원의 존재성은 선우 원장님의 정신을 이런 천수관음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는 말이 있다.

요셉의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직원 미사를 드린 지가 10년이 넘었으니 이제 요셉의원 은인들에게 글을 쓸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이런 '좋다고 소문난' 일터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수도원에서도 이런 일을 가끔 보게 된다.

그러나 요셉의원과 가까이 하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극장 관람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화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요셉의원에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선우 원장님이 만드신 '사업'보다 그분의 얼굴이다.

청진기를 걸고 환자들을 보살피시며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하셨던 원장님의 모습이 직원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보며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마치 선우 원장님의 분신들이 더 넓고 깊이 분산되어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요셉의원의 실제 원장이 선우 선생이라는 인상이 들도록 움직이는 모습에 감동했다.

처음 미사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의원의 수준을 몰라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다. 요셉의원이 무료 진료를 시작한 동기는 너무도 고귀하나 서울을 뒤덮고 있는 많은 번쩍 번쩍 빛나는 의료시설과 달리 자선병원이니 만큼 실제 운영에 있어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가난을 이상으로 삼는 프란치스칸이라 해도 사제로서 이런 자선병원에 '손님'이 되면 요셉의원의 위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무슨 겸손의 선행을 하는 양 치료를 부탁한 적이 있다. 한데 병원의 의료진을 보고는 나의 판단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를 깨닫고 얼굴을 붉혀야 했다. 대단한 경륜을 지닌 인술의 사도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선우 원장님의 얼굴을 재현하는 것이 요셉의원의 사명이라면 의료진도 그렇거니와 전 직원이 바로 선우 원장님을 일깨우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다.

불교에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써 구제해주는 천수관음(千手觀音)보살이 계신다. 지금 요셉의원의 존재성은 선우 원장님의 정신을 이런 천수관음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요셉의원은 선우 원장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설이기 이전에, 그 분신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참 모습을 내보이는 참 신한 단체로 여겨진다.

이종한(요한) 신부
프란치스코수도회

요 셉 의 원 소 식

개원 34주년 기념미사 봉헌

지난 8월 29일로 개원 34주년을 맞은 본원은 8월 30일 오후 3층 경당에서 조해붕 원장신부의 집전으로 조촐한 기념미사를 봉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올해의 개원 기념행사 역시 별다른 이벤트 없이 설립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미사로 치러졌다.

이날 미사에서 조 원장신부는 강론을 통해 "34년 전 선우 경식 선생이 시작한 우리 요셉의원의 정체성은 무료 자선병원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오면서 많은 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실무 직원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시간과 의미들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지키며 함께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신부는 이어 "지금의 우리 모습을 통해 드러내시려는 하느님 사랑 안에서 무료 자선병원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잘 녹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런 실천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며 부족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고, 그 축복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리라는 희망과 용기와 기대를 가져보자"고 당부했다.

본원은 지난 1987년 서울 신림동에서 개원한 뒤 1997년 지금의 영등포 현 위치로 이전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무료 진료와 각종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잠정 보류)을 제공하고 있다. 개원 후 총 진료 인원은 9월 말 현재 71만2600 명을 넘어섰다.

요셉나눔재단 발기인 총회 개최

본원은 지난 7월 30일 서울 명동 교구청 회의실에서 '요셉나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주교단을 비롯해 본원 조해붕 원장신부와 신완식 의무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법인 이사진 10명과 감사 2명을 선임하고, 법인 정관을 심의, 확정했다. 새 법인 초대 이사장에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인 유경촌 주교가 선임됐다.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는 최근 주무 관청에 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행복한 의사'와 비대면 의료봉사 협력 체결

본원은 9월 1일 비대면 의료상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비영리단체 '행복한 의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국내 외국인 환자와 해외 오지 빈민지역 환자 및 봉사자들을 위한 의료상담과 사후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석재 '행복한 의사' 대표(응급의학과 의사)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비대면 의료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의료봉사도 비대면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의료진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의사(Happy Doctor)'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이 앱을 통해 환부 사진을 첨부하거나 자신의 모국어를 선택해 의료상담을 요청하면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본원은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이 앱을 활용해 ●새로운 환자나 외국인 환자 초기 상담 ●해외 의료지원국의 환자 상담 ●해외 파견 성직자나 수도자 의료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 내 말 씀

후원자 님께,

본원에 오랫동안 따스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도 일찍부터 기존의 인쇄물 소식지(요셉의원) 외에 이 인쇄물과 똑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메뉴 중 '요셉회보' 난에 올리고 있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지 링크 : http://www.josephclinic.org/community/page02.html

이에 인쇄물 제작과 발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인쇄물을 받아보지 않으실 후원자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및 문자 : 070-4688-3416 이메일 : donation@josephclinic.org

부서 배치 변경 따라 인테리어 정비

본원은 부서 배치 변경 계획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원내 일부 진료실과 사무실을 이전 배치하고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부서 배치 변경으로 2층에 있던 접수 / 의무기록실을 1층 한방 / 물리치료실로 확장 이전하고, 기존의 의무기록실을 안과와 이비인후과 진료실로 활용하게 됐다. 1층 한방 / 물리치료실은 3층 치과 옆 진료실로 옮겼다. 이번 공사에서는 특히 비좁았던 1층의 환자 대기 공간을 확장해 환자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쪽방 350가구에 추석나눔 선물 전달

추석을 나흘 앞둔 지난 9월 17일 본원 직원과 봉사자 20여 명은 영등포역 앞 쪽방촌 350가구에 본원에서 준비한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송편과 약과, 수정과, 사과와 귤 및 볶음김치로 구성된 물품 가운데 특히 볶음김치는 본원 식당 영양사들이 며칠 전부터 재료를 준비해 직접 조리를 한 뒤 위생 포장을 했다. 선물을 받은 쪽방주민들은 "따스한 정성이 깃든 탓인지 볶음김치가 한층 맛있어 보인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본원 부설 목동의 집 입소자 다섯 명은 함께 송편을 빚으며 한가위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

환자 스토리

부비동암 수술 뒤 틀니 치료 받은 박태식 씨

"이제 불행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비동암으로 눈 밑과 코 밑의 조직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이가 빠져 고생하던 박태식 씨(56)가 지난 8월 13일 본원 치과에서 틀니를 장착한 뒤 "이제 불행은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박 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픈 곳 중 하나가 치아인데, 그동안 이가 거의 빠져 말도 못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았다"며, "너무 고마워서 나같이 고생하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요셉의원에 1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부비동암 초기 징후를 발견한 것은 지난 2016년. 평소와 달리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콧물이 흐르고 코피가 흘렀다. 가까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찾아갔더니 암이라며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당시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기 때문에 큰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 시립 보라매 병원에 가서 오른쪽 눈과 코 밑의 암 조직을 제거하고 허벅지 근육을 떼어다 붙이는 등 세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후유증으로 이가 빠지

고, 윗턱을 받치는 근육이 물러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다시 보라매 병원을 찾아가 종아리뼈를 떼어서 잇몸을 만들었다.

박씨가 보건소 파견간호사의 소개로 본원을 찾은 것은 올해 5월. 부기가 좀 가신 7월에 다시 내원해 턱과 치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식한 뼈의 기복이 심하고 틀니를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이 약해 틀니를 제대로 장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당시 박씨를 치료했던 김정식 치과봉사의는 "환자의 처지가 딱해서 기공사와 상의해 틀니 장착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보철 시술 중 가장 고난이도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이 고향인 박씨는 청년시절 솜틀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린 뒤 취직할 곳이 없어 새벽에 오토바이로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를 떼어다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때 한 여성을 만나 4,5년을 함께 살았으나 헤어지고, 부산으로 내려가 조기잡이 어선을 15년 정도 탔다. 거기서 다소 돈을 모아 의류 유통업에 손을 댔으나 재고가 쌓이면서 그만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결국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파란 많은 인생이었으나, 어려울 때 병원이나 관공서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장기기증을 약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고아원에 수급비를 쪼개 월 5만원씩 보내고 있어요."

박씨는 "장기 기증을 했으니 사는 날까지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더 힘든 이들을 위해 고마운 요셉의원에도 정기후원을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후원의 손길

용돈 모아 2000달러 기부한 노수아 후원자

"기부도 받는 이만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2년 전인 2019년 7월 미국 유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본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에 각각 1000달러씩 기부한 노수아 씨(32)가 지난 8월 11일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찾아 다시 2000달러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용돈 일부를 모아서 기부를 하게 됐어요. 필리핀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따스한 한 끼 식사라도 제공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랄한 차림새에 성격도 쾌활한 노 후원자는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리 남을 돕는 일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예쁜 것 좋아하고 나만을 위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철이 좀 들다보니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면 죽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노 후원자는 이런 기부를 통해 크게 남을 돕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로부터 '야, 기부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겠지만, 어찌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으니 그리 내세울 게 없다는 것.

이같이 자신의 일을 객관화하는 시각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생각이기는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 내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장학금을 주어 학교에 가도록 지원하는 필리핀 요셉의원을 돕는 것이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에 거침이 없는 그는 공부에 대한 열정과 기대도 남다르다. 미국 뉴욕의 대학에서 5년 간 유학을 하고 최근 귀국한 그는 2년 뒤 다시 출국해 대학원에서 종교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 따고 책도 써서 제 분야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힌 노 후원자는, "책을 써서 수익을 얻는다면 요셉의원에도 더 많은 후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1년 7~9월)

● 강명준 ● 강부자 ● 강혜선 ● 고재길 ● 구광수 ● 권남희 ● 김금제 ● 김남귀 ● 김남희
● 김선재 ● 김양석 ● 김연경 ● 김영미 ● 김영희 ● 김용기 ● 김용희 ● 김윤오 ● 김재중
● 김종익 ● 김창희 ● 김한국 ● 김해람 ● 김행성 ● 김호준 ● 민성희 ● 박경진 ● 박명숙
● 박명자 ● 박미연 ● 박병식 ● 박상호 ● 박소연 ● 박소영 ● 박옥화 ● 박지성 ● 박찬규
● 박태식 ● 박해옥 ● 박현정 ● 변은주 ● 손혜숙 ● 신혜원 ● 아이젠 ● 안승자 ● 안재숙
● 안효선 ● 오경식 ● 월노공 ● 유승재 ● 유정현 ● 유창오 ● 유혜경 ● 윤원철 ● 윤태선
● 이경미 ● 이경숙 ● 이경숙 ● 이경혜 ● 이도석 ● 이선영 ● 이영재 ● 이예은 ● 이예진
● 이윤정 ● 이정길 ● 이정훈 ● 이지원 ● 이지혜 ● 이창배 ● 이한무 ● 임광용 ● 장혜련
● 전선영 ● 전영환 ● 정광철 ● 정미라 ● 정병률 ● 정상민 ● 정소윤 ● 정수용신부님
● 정은진 ● 정재승 ● 정진희 ● 정현선 ● 조아란 ● 조운종 ● 조정임 ● 조종수
● 주성신 / 박병성 ● 천소원 ● 초천재 ● 최다나 ● 최두용 ● 최민정 ● 최진우 ● 최형익
● 표영석 ● 하미숙 ● 하연희 ● 허소영 ● 허인숙 ● 홍정림 ● 홍 철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1년 7~9월)

● (주)배관랜드 디엠바이오 티케머랭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1년 7~9월)

● 공감마인드 : 두유 1상자 ● 김응서 : 야채 1상자 ● 백두관 : 감자 4상자 ● 보바스 기념병원장 : 과일 2상자 ● 영등포우체국장 : 배 2상자 ● 익명 : 두유 1상자 ● 조성희 : 야채 1상자 ● 청년식당 문간시장 : 음료수 10상자 ● 최복희 약사 : 떡 1상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 일동 : 과일 2상자 ● 한빛종합복지관 : 돼지고기 10Kg ● 황인수 : 김치 1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1년 7~9월)

● 김숙이 : 옷 1상자 ● 김진숙 : 옷 1상자 ● 김해술 : 옷 1상자 ● 김홍희 : 옷, 신발 1상자 ● 김효선 베로니카 : 남성 옷 3상자 ● 노미옥 : 옷 1상자 ● 돈암동성당 : 옷 1상자 ● 막골숨터농원(가평) : 옷 1상자 ● 박은경(부산) : 옷 등 생필품 1상자 ● 익명 : 옷, 신발 3상자 ● 임연순 율리따(로타리클럽 임종식회장) : 옷 27상자 ● 장정우 : 옷, 수건, 구두 외 3상자 ● 조대일 : 의류 1상자, 운동화 2컬레 1상자 ● 조준형 : 팬티 40장 ● 최 봄 : 옷 1상자 ● 최영자(신도림성당) : 의류, 신발 4상자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7~9월)

● 김홍희 : 목발 1짝 ● 삼일제약 : 포리부틴정 외 10종 ● 성의의료단 : 소론도 정 외 11종 ● 오서희(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 약품 1상자 ● 이기주 : 케펜텍플라스타 600매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37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1년 7~9월)

● 김종승 : 가방 1개 ● 김홍희 : 문구류 10개 ● 라파엘클리닉 : 마스크 3천장 ● 메디엔젤(주) 김동언 : 마스크 1상자 ● 박은경 : 마스크 1상자 ● 서유스티노 : 마스크 1상자 ● 윤영수 : 잡화 1상자 ● 이임정 : 전기난로 1대 ● 익명 : 마스크, 양말 등 잡화 2상자, 가위 1개 ● 장정우 : 우산, 가방 등 1상자 ● 정종재 프란치스코 : 샴푸 4상자 ● 조준형 : 마스크 300장 ● (주)배관랜드 : 마스크 2000장 ● 지노C&T : 국산차 4상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본원 인사 이동(2021년 9월 29일 부)

● 의료사업실 : 의무기록팀장 김정순
간호팀장 김영주
간호팀 김순점

● 사회사업실 : 사회사업팀장 민광한 수녀
환자상담팀장 윤은숙
요셉의 집 소장 문상운

● 행정지원실 : 후원관리팀장 한동호
총무팀장 이승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사 : 박세환(내과)
김종령(한의사)

● 약사 : 김진근

● 일반봉사 : 김정연·김현아·박정미
박지민·양은서

● 신학생 현장체험
– 광주교구 : 이태윤 요셉(9.27~12.17)
최호선 바오로(9.27~12.17)
– 대전교구 : 황범기 이냐시오
(8.10~12.31)
– 제주교구 : 김범준 베네딕도
(8.17~12.15)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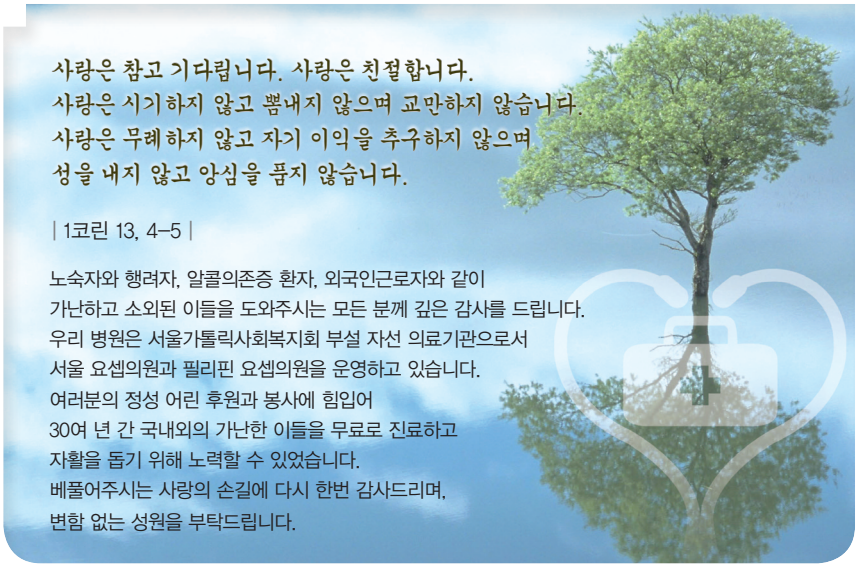
● 문간 시장 ● 미얀마 의료봉사팀
● 서울빈첸시오회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 안나의 집 ● 안산빈센트의원
● 이브라함 ● 이영자 ● 정승혜
● 쪽방나눔(350 가구) ● 최홍석
● 카프성모병원 ●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1년 7월	1,116명
2021년 8월	1,162명
2021년 9월	1,141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1년 9월 말 현재)

712,649명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알코올의존증 상담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